

부천문화재단

ssue

PAPER

이 슈 페 이 퍼 2015-6호

부천 공예문화산업클러스터의 발전적 제안

유럽자기박물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부천문화재단 이슈페이퍼

정 미 현 (유럽자기박물관 학예사)



부천문화재단
Bucheon Cultural Foundation



부천 공예문화산업클러스터의 발전적 제안

유럽자기박물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부천문화재단 이슈페이퍼

정 미 현 (유럽자기박물관 학예사)

부천문화재단
ISSUE PAPER
이 슈 페 이 퍼

발행처 부천문화재단
발행인 이진선
편집인 손경년
연구기획 이윤이 문화정책팀장
신정호 문화정책팀
박효빈 문화정책팀
발행일 2015. 11.

이 보고서는 최근 문화예술 전반의 이슈를 다루는 내용으로 부천문화재단의 공식의견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수록된 내용을 전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는 부천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머리말
- 공예문화산업클러스터 개념과 유형별 특성
- 부천 공예문화산업클러스터 현상(現狀)
- 부천 공예문화산업클러스터의 발전적 제안
- 맺음말

저자 소개

정 미 현

- 유럽자기박물관 학예사 -

부천 공예문화산업클러스터의 발전적 제안

유럽자기박물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1. 머리말

인간의 삶과 함께해온 생활 속의 예술인 공예역사는 인류 문명의 흐름에 따라 끊임 없이 발전 변화했다. 시대 흐름에 따라 공예의 표현 방법과 목적, 영역 역시 다양해졌다. 특히, 국민 정서와 그 나라 문화 이미지가 담겨 있는 문화자산으로서 수공예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이며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P. Drucker)는 “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고 승부처가 바로 문화산업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는 문화산업을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성으로 승부를 겨룰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고부가가치 산업, 정보통신 혁명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산업, 파급효과가 막대한 산업, 자국문화와 상품의 이미지 제고 및 외래전파에 이바지하는 산업 등으로 인식하면서 관심을 두고 있다.

많은 미래학자는 21세기 첨단 사회에서 인간의 정신적 가치를 더욱 중시할 것으로 예상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적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체계적으로 인간 삶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 창출 수단으로서의 공예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으며 공예문화진흥정책 수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은 2015년 5월 18일 제정되었다. 전 세계적인 추세는 직접제작(DIY) 문화 확산 등 일상 속 예술로서 생활문화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분야 간 융

복합을 통한 차별화가 새로운 산업경쟁력으로 주목받아 디자인, IT 등 산업 분야와 문화예술이 접목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2015년 11월 시행되는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은 우리 경제 발전에 새로운 견인차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국민이 '문화가 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천시는 문화예술을 지향하는 대표 도시이자 세계적 문화 도시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지식기반 산업 중심의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부천시는 유럽자기박물관을 비롯하여 공예체험교육관, 연구소, 대학교, 문화시설 등 우수한 공예 관련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으며 지식기반서비스업인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지역 문화산업클러스터에 선정되어 최첨단 문화산업의 선도, 확산, 파급, 공급, 소비 도시로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필자는 실용성과 대중성, 지속가능한 가치가 있는 일상 속 예술로서 생활문화인 공예의 성격에 주목하여 부천지역 생활공예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유럽자기박물관의 특성인 연구와 전시, 시민문화교육과 문화관광의 창조적 융합을 통해 부천지역의 새로운 공예문화산업클러스터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주민이 주체인 생활과 예술, 그리고 환경이 통합되어 살아있는 동시대 생활예술의 모습으로서 지속가능한 공예박물관의 한 전형을 모색하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2. 공예문화산업클러스터 개념과 유형별 특성

가. 공예문화산업 개념과 해외 선진국 공예문화산업 현황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와 ‘문화산업’이 융합된 산업으로 ‘공예’는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 문양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¹⁾ ‘문화산업’은 우리나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서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서 영화·비디오, 음악·게임, 미술품, 공예품 등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다. 즉 ‘문화자원을 산업화하여 재화, 서비스, 정보 등의 형태로 판매하는 산업’ 혹은 ‘문화를 핵심역량으로 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²⁾이라 할 수 있다.

‘공예산업’은 문화적 요소와 산업적인 요소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양면적 속성을 지닌 공예품으로 구성된다. 공예품을 만드는 과정은 수작업이나 기계작업이나에 의해서 한정생산과 대량생산의 속성으로 나뉜다. 예술성이냐 실용성이냐에 따라 심미성과 기능성으로, 전승이나 창작이나에 따라 전통성과 현대성으로 구분된다.³⁾ 이렇듯 공예품의 이러한 양면적 특성으로 인해 그 영역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타 산업과 확연히 구분되는 고유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⁴⁾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공예문화산업의 특성상 공예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일반제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산업의 분류체계는 객관적이며 공통적으로 구분 가능한 방법을 사용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공예문화진흥법, 2015

2) 정건용, 「공예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호남권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9쪽

3) 이유아,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공예산업 활성화 방안」, 전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8~9쪽

4) 문화체육관광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2015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와 연계할 수 있도록 2003년 제)한국공예문화진흥원에서 '소재'와 '용도'를 기준으로 한 '신공예문화산업분류체계'를 <표1> 과 같이 작성하였다. 도자공예, 유리/석공예, 목/죽세공예, 금속공예, 종이공예, 섬유공예, 가죽공예, 기타공예 등 소재별 분류는 현재의 분류체계가 보편적이고 여전히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으며 파악과 구별이 용이하다. 가구, 생활용품, 주방용품, 장신구/잡화, 문방용품, 기타 등 용도별 분류는 상품의 실수요자 측면을 고려할 때는 바람직한 분류체계이지만,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산품과 차별화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표1. 신공예문화산업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소재별)	소분류(품목별)	적용내용
제조	도자공예 유리/석공예 목/죽세공예 금속공예 종이공예 섬유공예 가죽공예 기타공예	가구	거실장, 장식장, 식탁, 화장대 등
		생활소품	스탠드, 화병, 거울, 시계, 액자, 촛대 등
		주방용품	반상기, 공기, 접시, 잔, 다기, 식탁보 등
		장신구/잡화	목걸이, 반지, 팔찌, 브로치, 지갑 등
		문방용품	메모꽂이, 칼, 붓, 필통, 베틀, 책갈피 등
		기타	약기류, 초 제품류 등
유통	도매업/소매업	상 동	상 동

출처: 한국공예문화진흥원, 국내 공예문화산업 분류체계, 2003

해외 선진국 공예문화산업 현황과 지원정책 사례 <표2>를 통해 공예산업분야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가별 지원정책을 요약하면 프랑스는 정부기관이 공예정책 수립에 관여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에서는 공예정보와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공예진흥기관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라노 유리공예 인증기관에서는 국제적 인지도 향상을 위해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은 공예청을 통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비영리 단체 히든아트에서는 전문포럼 및 박람회 지원 및 관리를 한다. 일본은 전통공예품산업진흥협회에서 공예 관련 민간협회 중 가장 활발한 공예 사업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중앙 수공예협회가 공예작가 후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2. 해외 선진국 공예문화산업 현황 및 지원정책

국가	주요 추진정책	대표사례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지역전문가로 구성된 정부기관이 공예정책 수립에 관여 - 젊은 공예인 육성을 위한 공예장소 견학 기획, 관광연계를 통한 수익창출 - 프랑스 공예 글로벌화를 위한 전문기관(SEMA)를 두고 공예정보 제공, 기술지원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공예산업 향상 	250년 전통의 세브르(Sevre)도자기 제작소는 유명 예술가, 디자이너와의 협업 및 현재 도자기 미술관을 운영 중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스카나 공예진흥기관은 토스카나 공예의 R&D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바이어 연계를 통한 공예품 제작·판매 시스템 구축, 박람회 개최 및 직영 브랜드 매장 운영 - 무라노 유리공예 인증기관은 무라노 유리공예품 인증 마크 부여관리, 온오프라인을 통해 인증제품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 향상 지원활동수행 	무라노(Murano)섬은 대형 유리공방이 체험, 전시 판매를 모두 수행하는 관광 자원으로 유리공예품 인증을 통해 품질관리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예청(Craft Council)은 공예개발, 전시·컬렉션, 교육, 판매사업등 공예산업 관련자를 육성지원 - 비영리 단체 히든아트(Hidden Art)는 상품개발, 판로개척, 잠재 공급자, 제작자, 서비스 제공자 간 유기적 네트워크 정보 제공 및 신기술 발전을 위한 전문 포럼 및 박람회 지원 및 관리 	다팅톤(Dartington)은 실용적, 교육, 전문디자인 인력활용, 외국과의 연계 등으로 도자공예 클러스터를 구축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 공예품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예산업 지원 - 전통적 공예품산업 진흥협회는 '전통공예사인증제도' 등의 인재 육성사업과 전국 전통공예품센터 운영사업, 조사연구사업 - 전통적 공예품 산업실은 전통공예품 지정품목측정, 보조금 지급, 전국단위 공모전과 계몽활동 등 수행 	가나자와(金澤)는 전통공예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도시화 및 산업화·대중화에도 노력, 유네스코 공예도시로 인정(2006)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수공업협회가 대기업과 연계하는 공예작가 후원 제도 운영 - 공예업체를 대상으로 성장 지원을 위한 융자 대부 시스템(Guw) 운영 - 클러스터화 및 관광자원화 	오버아머가우(Oberammergau) 목공예마을은 지역전통 문화와 연계하여 목공예의 요지 및 관광지로도 유명

출처: 공예산업 활성화 대책, 문화체육관광부, 2013

나. 문화산업클러스터 개념과 선진 클러스터의 유형별 특성

‘클러스터’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관련기업과 기관, 그리고 지원 서비스 주체 등이 상호협력과 경쟁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인접한 집단으로 정의한다. ‘문화산업클러스터’는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3개 하위 시스템(비전제시자, 시스템 통합자, 전문요소 공급자) 중에서 중심점이 되는 산업생산체계가 문화산업 분야의 기업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즉 비전제시자는 일반적으로 지자체, 연구소, 학교 등이 있으나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우 그 지역에서 활약하는 유명감독과 같은 유력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시스템 통합자는 대기업, 전문요소 공급자는 마케팅사, 소규모 제작사, 학교, 연구소 등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⁵⁾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일반적으로 영세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문화산업체들 간의 하청계약과 연관기관들 간의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성되고 있다. 이렇듯 문화산업 클러스터가 다른 클러스터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는 문화정책을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들이 문화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창작자가 주도한다는 것이다. 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큰 역할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창작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창작자 주도형이라 할 수 있다.

문화산업은 변화가 빠른 산업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수시로 모여 최근의 트렌드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킹하기 위해서는 집적화된 클러스터가 필요하다. 이는 정보와 통신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제주체들의 하드웨어에 대한 접근성이 클러스터 형성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 하더라도 업계 공통의 이해를 실현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멀티미디어와 문화콘텐츠분야의 독립제작사들에게 보다 의미 있는 지원환경은 사업자들이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의 구비이며, 멀티미디어 제작에 가장 중요한 원재료는 콘텐츠 자체이고 그 콘텐츠의 주된 공급원은 박물관, 도서관, 극장, 음악관련 기관, 갤러리 및 시청각 기관, 기록물관리소 등이다. 이러한 공급원들을 조직하고 관리·운영하는 일은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매우 긴요한 생산요소를 제공한다.⁶⁾

또한 경쟁력 확보와 이윤확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되고 특화된 지식과 아이디어의 교류, 상호학습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형태로 클러스터가 형

5)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료집-콘텐츠, 2013

6) 정건용, 「공예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호남권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37~38쪽

성되어야 한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제 발전의 큰 흐름은 21세기 지식기반산업 패러다임이 산업생산에서 문화생산으로 전환되고,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국 선진클러스터의 유형과 특성 <표3>을 파악하여 4장에서 부천 공예문화산업클러스터에 적합한 유형을 밝히고자 한다.

표3. 주요국 선진 클러스터 유형과 특성

유형	해외 성공사례	주요특징(전략, 사업내용)
지자체 주도형	영국 셰필드 맨체스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 및 경제부흥 계획이 선행 - 도심재개발 사업과 병행 - 창작산업(문화, 미디어, 디자인) 중심으로 일반시민(아마추어), 학생 등 참여 활발
대학 연구 주도형	영국 리버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창의력, 아이디어 연구 중심 - 지역의 대표적 대학(JMU)이 클러스터 혁신과 운영을 주도 - 연구 프로젝트를 통한 국제교류, 수익 실현
대기업 주도형	스웨덴 시스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러스터의 높은 시장매력도로 대기업, 다국적 기업 유치 - 에릭슨, IBM, HP 등 대기업이 '특별 이해자 그룹' 형성, 혁신주도 - 혁신전략의 제시를 위해 포럼 등 활발한 지식교류시스템 가동
국가 주도형	핀란드 올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총지휘하에 지역별 클러스터의 특성화 실현 - 국토 균형개발,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클러스터 확장 - 사회복지, 시민참여를 중시하는 공동가치의 추구가 전략의 핵심

출처: 지역 문화산업클러스터 현황점검과 발전방안, 문화관광부, 2003

성공적인 클러스터들은 지역특성에 밀착한 비전제시와 확실한 장기적 수익사업 발굴, 운영조직의 전문성 확보, 국제적 성공사례 창출 등의 측면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다. 국내 공예산업 정부지원정책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예를 통한 생활 속 문화융성을 실현하고, 공예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조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공예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명품공예 발굴 및 산업기반 육성, 해외진출 및 교류확대, 지역 특화 발전기반 마련이라는 4대 추진전략과 10대 핵심과제 정책 중 주목할 몇 가지 정책은

첫째, 생활과 밀착된 우리동네 공예공방 20개소 조성이다.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으며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동네 공예공방'을 2017년까지 총 20개소를 조성하여 일회적 체험이 아닌 지속적인 생활 속 예술로서의 공예를 만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2017년까지 세계적인 명품공예 10개 종목을 발굴, 박물관·미술관 등에 공예품 상설 판매 공간을 확대하고, 유통마케팅 전문인력 활용을 지원한다.

셋째, 공예 생산거점을 대상으로 '지역 특화 공예마을'을 2017년까지 5개를 선정, 집중 육성해 나가고 지역의 고유한 공예소재 및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연계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지역공예품을 개발하여 지역관광 기념품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것이다.

3. 부천 공예문화산업클러스터 현상(現狀)

부천시는 유럽자기박물관을 비롯하여 공예체험교육관, 문화기관, 우수한 공예작가, 중소 기업체 등 정부 정책에 적합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특별시 부천'을 정책비전으로 생활 속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창의 파트너십과 창조역량이 효과적으로 발휘되는 환경 조성, 문화콘텐츠 창작지원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창조문화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천시의 도시발전 전략<표4>과 전략산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천시는 문화특별시 부천건설을 지향하고 있지만 부천시 도시발전전략에는 문화에 대한 자세한 정책이 없다. 공예문화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서 기인한다.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현황을 알아보고 4장에서 부천 공예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4. 부천시 도시발전 전략

전략방향	추진개요
고부가가치 지식 기반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기반시설 부족, 영세중소기업 위주의 기업 분포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술, 정보 등 지적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기반산업 발굴 및 육성 2. 산업단지 조성 및 기존지역 리모델링을 통한 산업입지 확보 3.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환경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4대 특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첨단 고부가 산업 중 4대 산업을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2. 금형산업 첨단화 3. 조명산업 신성장 동력화 4. 로봇산업 고도화 5. 패키징산업 허브화
물류·유통산업 기반조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천오정물류단지 개발 2.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3. 친환경 농산물 생산공급 4. 역세상권 특화개발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6. 사람 중심의 도시농업 활성화

출처: 비전 부천 2024

부천시는 국가 기간산업과 연계된 산업으로 금형, 패키징 산업의 집적도가 높고, 지식 기반 제조업은 조명, 로봇산업의 집적도가 높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문화산업클러스터로 선정되어 지식기반서비스업인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금형, 조명, 로봇, 패키징, 만화/영상산업을 5대 전략산업으로 선정, 집중 육성함으로써 기존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21C 부천경제를 선도하는 성장엔진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가. 부천시 문화기반시설 현황

2013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 문화기반시설은 박물관 11개소, 공공 도서관 11개소, 문화원 1개소, 전문공연장 4개소, 문예회관 1개소, 영화관 7개소 등 2012년도 기준 3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관련 산업으로서 부천시 문화관광 현황은 다음과 같다.가 또한 박물관 배리 및 향토 문화자원으로 학습·체험 박물관 자원인 유럽자기, 교육, 수석, 활, 필벽, 옹기, 자연생태박물관 등이 있으며, 향토·민속 문화원 자원으로는 고강동 선사유적지, 점말, 궁시장 등이 있다. 원미산 진달래축제, 복사골 예술제, 도당산 벚꽃축제, 복사골청소년 예술제 등 지역문화예술 축제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 부천시 지역문화조직 현황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육성 조직 <표5>은 부천문화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공연영상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 7) 주요 문화관광 인프라 현황은 부천시에 등록된 관광사업체는 여행업 76개소, 관광숙박업 11개소로 총 87개소이며 관광 숙박업 11개소는 모두 관광호텔이다. 부천시에 유입된 관광객 수는 2008년 85만명에서 2011년 230만 명을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약 46.2%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고, 주요 관광지 중 웅진플레이도시가 33.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아인스월드(13.5%), 자연학습장(9.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 관광자원으로는 세계 25개국 유명 건축물들이 축소/전시되어 있는 미니어처 테마파크인 아인스월드와 한옥체험마을 내 위치하고 있으며 김순자 명인(대한민국 1호)의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을 통한 인천공항 환승객 유치에 대표 자원인 김순자 명인의 김치 테마파크가 있으며, 국내 최초의 실내 스키돔으로 도심형 레포츠 문화의 랜드마크인 웅진플레이 도시와 도심 속 문화캠핑장으로 가족과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아인시대 캠핑장, 부천역 북부광장 주변 만화 특화거리인 상상의 거리가 있다. 자연적 문화자원으로는 부천시 외곽의 산과 공원, 들판과 하천을 하나의 길로 연결하여 테마길을 조성한 부천 둘레길이 있다. 기업체 및 동호회, 개인등 다양한 시민 참여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다.

표5.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육성 조직

법인명	설립일	소재지	법인형태	대표자	조직구성	인원	주요사업
부천문화재단	01.10.1	부천시 상동	재단법인 (부천)	김만수	2본부 8팀, 9개 위탁사업	50명	문화예술정책수립, 문화예술진흥, 복지증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98.12.4	"	"	이희재	2본부 6팀, 2사무국	41명	만화문화 저변 확대 및 만화콘텐츠 산업 육성
경기콘텐츠진흥원	01.8.29	부천시 춘의동	재단법인 (경기도+ 부천)	서병문	2본부 6팀	44명	경기도 및 부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경기공연영상위원회	01.8.29	"	"	조재현	1국 2팀	9명	경기도 및 부천시 공연영상산업 육성

출처: 2013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부천시

부천문화재단은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을 통한 문화산업기반의 구축, 지역사회 발전과 부천시민의 생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비전은 시민이 행복하는 문화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2002년 문화관광부가 지원하는 만화-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지역 문화산업클러스터로 선정되었다. 만화는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광고, 캐릭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창작소재로 활용되는 원작 산업으로 (One-Source Multi-Use) 2차 시장 개척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분야이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002년 경기도에 의해 경기 디지털 아카이브 종합지원센터를 경기 디지털 콘텐츠진흥원으로 확대하여 영화를 포함한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부천을 디지털콘텐츠의 중심지로 키워나가고 있다.

다. 부천시 콘텐츠산업 및 교육기관 현황

2013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경기도 콘텐츠산업 인프라 현황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내 콘텐츠창조산업 진흥기관은 수는 총 10개 기관으로 고양시 1개관, 부천시 2개관, 성남시 2개관, 수원시 1개관, 안산시 1개관, 안양시 1개관, 용인시 1개관, 포천시 1개관이다. 부천과 타 도시의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교육기관 수를 비교해보면 <표6>과 같다.

표6. 부천과 타 도시의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교육기관 수

지역	부천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2/3년제 대학	2	1	2	-	1	3
4년제 대학	1	4	1	1	9	2
대학원	1	3	1	1	6	1
대학 부설 연구소	-	11	1	1	9	-
계	4	19	5	3	25	6

출처 : 경기도콘텐츠진흥원(2013), 경기도 콘텐츠산업 인프라 현황조사

다음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부천시 콘텐츠산업 현황 <표7>으로 2010년도에 잠시 주춤했던 콘텐츠산업 분야의 기업수, 매출액, 종사자 수가 2012년도에는 가장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7. 부천시 콘텐츠산업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고
기업수(개)	118	110	124	118	196	217	
매출액(백만원)	205,293	177,434	169,000	174,093	213,140	279,614	
종사자수(명)	1,585	1,782	2,192	1,202	1,691	2,764	

출처 : 경기도콘텐츠진흥원(2013), 2012경기도콘텐츠산업 실태조사

부천시 클러스터 분석결과 <표8> 장기적인 육성전략의 체계를 갖추어 기본적인 추진 동력은 잘 갖추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문화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생산뿐 아

나라 지역 내에서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져 만화의 문화를 향유하는 복합적인 클러스터로 발전이 필요하다. 대표성을 지닌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학교 등 만화와 관련된 모든 기관이 한 곳에 집적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8. 부천시 클러스터 분석 결과

클러스터 성공요인	부천시 클러스터	주요내용
집적성	○	연구기관, 학교, 기업 등 주요 구성요소의 보완이 필요
네트워킹	○	만화작가들만 제한적으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있음
소비연계성	△	생산에 비해 소비 영역이 두드러지게 비활성화
지역착근성	△	콘텐츠 장르 중심의 조성으로 지역 특성이 미반영
계획성	◎	부천시 문화콘텐츠과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 방안 수립
성공 사례	△	지원을 통한 대기업의 성공사례와 대표성 있는 기업 필요
인프라	○	수도권등 인근 지역과의 접근성과 교통 인프라가 구축

주: ◎는 성공요인을 갖추고 있음, ○는 보통, △는 갖추지 못함

출처: 2013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부천시

부천시는 비전 부천 2020과 비전 부천 2024⁸⁾에서 콘텐츠산업 전략 방향 및 권역별 문화콘텐츠산업 발전구상<그림1>을 밝혔다. 비전 부천 2020에서의 핵심 전략방향은 ① 문화콘텐츠산업의 생산과 유통, 소비 기능이 있는 부천시 서남부를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와 문화관광 허브 벨트 조성이다. ②관내 대학과 문화유적 및 문화체육교육공간이 밀집되어 있는 부천시 동부를 중심으로 R&D와 문화원형콘텐츠 벨트를 조성하는 것이다. ③부천시 5대 전략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산업 간 창의적 융합 활성화로 제조업

8) 2014년 12월 발표된 부천시 도시발전계획으로 소통과 창조가 융합된 문화도시 부천을 슬로건으로 2024년까지 각종 사업 창조 붐 조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내생활만족도 1위인 문화특별시 부천을 만들고자 함

및 기존산업체가 밀집된 부천시 북부를 중심으로 한 융합벨트 조성이다. ④부천시 문화 콘텐츠산업 및 관광산업과 관련한 자금, 경영,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에 관한 정책적 지원 지역인 부천시 중부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벨트를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번 비전 부천 2024에서는 금형, 조명, 패키징, 만화, 영상산업을 5대 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함으로써 기존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하여 21세기 부천경제를 선도하는 성장엔진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뉴미디어와 스마트 환경에서의 융복합 디지털콘텐츠 제작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창출형 문화콘텐츠 제작여건

조성과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관련단체, 작가, 학계, 콘텐츠기업, 지원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문화산업클러스터 구축이 목표이다.

향후 단계별 추진 계획을 알아보면

1단계 (2013년~2017년) : 인프라 구축, 클러스터 구축,

2단계 (2018년~2022년) : 타산업과의 융합, 클러스터 고도화,

3단계 (2023년~) : 국제화 단계, 클러스터 완성(복합클러스터)이다.

그림1. 권역별 도시발전 계획도 (기능중심)



출처 : 비전 부천2024, 부천시

라. 부천시 공예체험교육관 및 공예단체 운영 현황)

부천시 공예체험교육관은 2001년 6월 27일에 개관하였다. 원미구 소사로 482, 부천종합운동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660㎡로 7개의 교실과 전시 판매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전통민화(업체명:민화세상), 압화(업체명:꽃누리미), 단청(업체명:단청문양), 한지(업체명:한지공예), 천연비누(업체명:비누공예), 도자기(업체명:도예), 켈트(업체명:켈트공예) 등 전통공예와 현대공예의 7개 분야가 입주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이다.

공예체험교육관의 운영방침은 1.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시민과 학생들에게 계승 발전하고 2.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 체험교육장과 시민 취미교실로 활성화 3. 공예를 산업과 접목해 우리나라 공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2001년 개관부터 2016년까지의 공예체험교육관 운영현황 <표9>과 타 자치단체 공예체험관 보조금 지원현황 <표10>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시의 지원이 삭감되고 타 자치단체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9. 공예체험교육관 운영현황(2001~2016)

	1차임대(3년)	2차임대(3년)	3차임대(3년)	4차임대(3년)	5차임대(2년)
임대기간	2001.7.23.~ 2004.12.31	2005.3.2.~ 2008.3.1	2008.3.2.~ 2011.2.28	2011.3.1.~ 2014.2.28	2014.3.1.~ 2016.2.29
건물면적	520㎡	660㎡	660㎡	660㎡	660㎡
입주분야	9분야 도자기, 풍선, 석화, 한지, 목공예, 자수, 압화, 문인화, 금속	6분야 금속, 대목, 도자기, 현대, 전통연, 민화	7분야 단청, 연, 옷칠, 민화, 칠선, 목공예, 한지	7분야 단청, 클레이, 한지, 민화, 옷칠, 칠선, 목공예	7분야 단청, 한지, 천연비누, 민화, 도자기, 압화, 켈트
입주업체 모집	(사)전통공예협회 부천시지위탁	공개모집 (23건 접수)	공개모집 (14건 접수)	공개모집 (21건 접수)	공개모집 (14건 접수)
시 지원	공공요금, 임대료, 체험관 리모델링	공공요금, 임대료, 체험관 리모델링	공공요금:12백만원 임대료:15백만원	임대료:15백만원	임대료:15백만원

9) 자료: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과 제공

표10. 타 자치단체 공예체험관 보조금 지원현황

시군명	담당부서	운영비(원)	명칭 및 종류	규모(연건평)	비고
부천시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15,000 (공간사용료)	공예체험교육관 (공방, 전시, 판매, 체험관)	종합운동장내 1층(660㎡)	위탁 운영
성남시	재정경제국 지식산업과	45,000 (관리운영비)	민속공예전시관 (공방, 전시, 판매, 전승관)	지하1층, 지상 3층(1,500㎡)	위탁 운영
안동시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35,000 (관리운영비)	안동공예문화전시관 (전시, 판매, 체험관)	지상2층, 1동 (527.98㎡)	위탁 운영
충주시	복지문화국 관광과	26,000 (관리운영비)	충주공예전시관 (전시, 판매, 체험관)	지상2층, 1동 (853.72㎡)	위탁 운영
전주시	문화경제국 전통문화과	20,000 (관리운영비)	전주공예품전시관 (전시, 판매, 체험관)	지상1층, 3동 (1,083㎡)	위탁 운영

공예체험교육관의 체험교육과 견학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40,505명, 2013년 26,831명, 2014년 18,746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준다.

다음은 부천시의 공예단체현황이다. 부천시의 공예단체는 (사)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 부천시회, (사)경기공예협회, 부천공예체험교육관으로 3개 단체, 90명이 소속되어 있다. 부천시 공예 동호회는 나무야나무야, 도희아트, 목로서각, 부천도예가회, 빨간코네모, 사이다, 여나라, 우리는 아름다운 무지개 친구, 유래공작소, 도담토우, 토닉회-즐거운도자, 토인즈, 통합예술나눔연구소, 취미나눔 사진동호회 등 14개 동호회, 148명이 활동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부천시는 만화산업 및 만화도시로의 이미지가 강하고, 축제 및 영상문화단지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가용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도시의 역사성이 부족하여 지역문화자원의 발굴과 콘텐츠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콘텐츠 산업 분야 대표기업이 부재하고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되어있다.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해 탄생한 공예체험교육관의 운영 실태 또한 매우 열악하다. 2016년 계약기간 만료 후 지원정책이 전무하고 폐쇄될 위기에

초해 있다.

전반적인 우리의 공예산업은 수작업 중심 및 개인공방 위주의 제작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다시 영세한 재무구조와 유통구조의 비효율성, 낙후한 디자인, 마케팅 전략의 부재, 사회적 인식의 부족, 공예문화산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중심기관 및 지원체계의 부재, 지원정책의 미비 등의 요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¹⁰⁾ 한국의 공예산업은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예술성과 시장성을 어떻게 조화·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다.¹¹⁾

향후 유럽자기박물관은 공예체험교육관, 근접한 다른 박물관과 도예연구소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공예문화를 형성해야한다.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융합하는 새로운 분야의 지속적인 공예작가 발굴과 시민들에게 더 많은 교육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대한 부천시의 강한 정책적 의지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제안을 통해 공예, 음악, 영상, 출판 등 만화 이외 다른 분야의 클러스터 구축을 기대해본다. 또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공예문화산업 진흥에도 힘써야 한다.

10) 한장원, 「공예문화상품의 산업화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05. 2쪽.

11) 조정환, 「현대생활공예 문화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7. 35쪽

4. 부천 공예문화산업클러스터의 발전적 제안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각 지역은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 시키고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부각과 문화콘텐츠 구축 및 문화산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등의 목적을 갖고 박물관과 같은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등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후 각종 전문분야별 다양한 박물관이 폭발적으로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박물관의 양적 성장과 함께 박물관 소장유물의 다양화로 인해 테마와 콘텐츠가 다양화·전문화하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존 박물관은 유물을 소장, 보존, 전시, 조사, 연구하는 곳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공·사립박물관을 중심으로 전문박물관이 등장하게 되었고, 기능도 다양화되었다. 즉, 수집 및 전시·보존 등 박물관의 고유 기능에 해당하는 분야와 함께 대중을 위해 체험·교육 및 공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박물관의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전문테마박물관은 비영리의 항구적 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 주민과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개방되는 비영리의 항구적 기관이다. 학습과 교육, 위락을 위해서 역할을 수행하고, 인간과 인간의 환경에 관한 증거물을 수집, 보존, 연구, 교류, 전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지역테마박물관은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과 생태환경 등을 기반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복합공간이어야 한다.

유럽자기박물관은 부천시 원미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럽자기’를 테마로 2003년 설립된 공예전문박물관이다. 21세기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부천시 시민들을 위해 유럽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제적인 감각과 안목을 넓혀 문화발전과 문화향상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에 설립 목적이 있다. 18세기부터 근대에 이르는 유럽자기를 비롯하여 유리(크리스탈) 작품과 도자기 액자, 앤티크 가구가 주요 소장품이다.

유럽자기박물관은 문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동양과 서양을 잇는 매개체로서 상설전시를 비롯하여 년 2회 이상의 특별기획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포셀린페인팅과 그림이 있는 세라믹 교실, 냅킨공예, 클레이 아트 등의 체험과 유럽문화산책, 학예사와 함께하는 유럽문화이야기 등의 강좌를 연중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획전시는 ‘한국도 자기와 유럽도자기의 만남’, ‘유럽자기의 원류 마이센 작품’, ‘소박한 석간주자기의 새로운 조명’, ‘아르누보를 빛낸 유리예술가의 작품세계’, ‘자기인형으로 보는 유럽문화이

야기', '동양자기의 신비-유럽자기의 뿌리를 찾아서', '만남, 첫 번째 결실-포셀린페인팅 작품' 전시 등이 있다. 특히 2015년 상반기에 개최한 '만남, 첫 번째 결실-포셀린페인팅 작품' 전시는 유럽자기박물관의 특화된 교육·체험프로그램인 '포셀린페인팅 교실'에 수년간 지속적으로 참여한 수강생들의 작품전시이다. 이는 창의적인 시민 양성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시민문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유럽자기박물관 '창작자' 배출의 첫 번째 사례이다.

지역 공예문화 교류의 장이 되기 위해 시민들이 문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유럽자기박물관의 역할이다. 도시문화정책의 최고목표는 명품도시나 글로벌 도시가 아니라 교양 있는 시민 육성에 있으며 시민이 바로 문화정책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깝고 일상적인 활동과 관련된 공예는 매우 효과적이며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부천시 공예문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럽자기박물관은 첫째, 도예를 비롯한 장식미술, 의상, 유리, 플라워아트,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공예 강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것은 박물관이 단지 하드웨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콘텐츠 츠웨어이며 문화와 산업, 관광을 창조적으로 융합하는 새로운 플랫폼의 시작이다. 둘째, 유럽자기박물관은 기증에 의해 설립된 전문테마박물관이다. 기증자의 소장품 수집 배경과 경로, 작품과 관련된 일화 등 소장품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 박물관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박물관 소장품과 관련 인물, 자연, 지역민의 삶 등 다양한 지역성을 담은 흥미로운 스토리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전시, 학술, 연구, 교육, 홍보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정보교류 확대 및 상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공예전문박물관인 인천애보박물관과 MOU를 체결하였다. 박물관간 협력망을 적극 활용하여 특색있고 차별화된 생활문화 관광콘텐츠와 연계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문화관광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셋째, 지역대학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관련학과 커리큘럼에 박물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박물관은 학생 인턴십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에 도움을 줌으로써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통해 Win-Win 전략으로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문화산업클러스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업뿐만 아니라 소비, 문화, 관광 등과 연결된 복합클러스터를 지향해야 한다. 문화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제작만이 아니라 작품생산이 관광, 소비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리적인 여건과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기업군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적 문화산업의 특성을 살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네트워킹을 활성화해야 한다.

여기에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적합한 기업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지자체 주도형인 영국의 셰필드 성공사례¹²⁾를 자세히 살펴보면, 1988년부터 셰필드 시는 문화, 미디어 등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시의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였다. 문화콘텐츠 산업이 성장속도가 빠른 지식산업이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셰필드는 문화산업지구를 지정한 후 지속적으로 도시재개발을 진행한 결과 세계적 문화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였다. 전철역이 가까우면서 도심 외곽에 위치한 문화산업지구에 관련 기업과 기관이 집적되어 있다. 성공요인은 첫째, 생산과 소비가 공존하는 문화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한 것이다. 문화와 여가, 관광과 소비가 연계되는 통합적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둘째, 시정부의 철저한 전략 수립과 일관된 추진 의지이다. 셋째, 도시 내 구공업지역 등 시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투자를 줄이고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문화산업 기반과 기존 문화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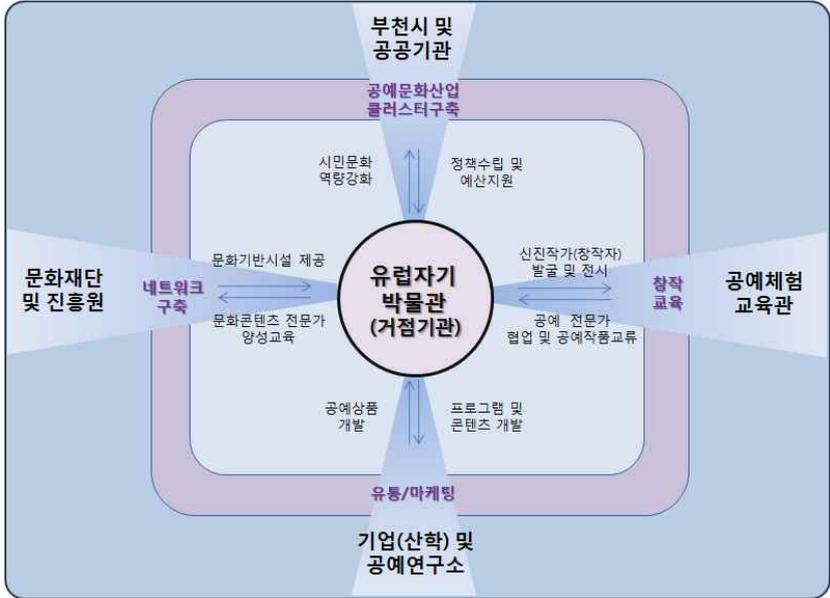
부천시에서 발표한 비전 부천 2024에서는 뉴미디어와 스마트 환경에서의 융복합 디지털콘텐츠 제작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창출형 문화콘텐츠 제작여건 조성 과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관련 단체, 작가, 학계, 콘텐츠기업, 지원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문화산업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8개 권역별 중점 추진 전략 중 주목할 곳은 원종권역의 관광 및 스포츠 중심권과 도당권역의 지식산업 및 특화산업 육성권, 심곡권역의 유통 및 서비스 중심권이다.

유럽자기박물관과 공예체험교육관, 근접한 다른 박물관과 도예연구소 등이 위의 권역에 포함되어 있다. 공예는 지역적인 성격이 강한 문화로 문화적 다양성의 상징이다. 공예문화산업클러스터 거점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럽자기박물관은 공예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공예문화를 만들고 전통과 현대가 융합하는 새로운 분야의 지속적인 공예작가 발굴과 시민들에게 더 많은 교육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공예문화산업클러스터 거점기관으로의 유럽자기박물관 역할 개념은 <그림2>와 같다. 그리고 공예 전문 전시공간과 자원의 특화로 도자기와 유럽문화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예문화를 이끌고 21세기 한국적 현실에 맞는 진정한 공예 문화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고정민, 「부천문화산업 클러스터 현황 및 성공조건」, 삼성경제연구소, 2004.

그림2. 공예문화산업클러스터 거점기관으로서의 유럽자기박물관 역할 개념도



5. 맺음말

유럽자기박물관을 거점으로 하는 부천시역의 새로운 공예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제안하고 지속가능한 공예박물관으로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었다.

스마트 시대인 지금은 자본과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창의 시대다. 즉, 스마트 시대는 창의, 인성, 체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시대이다. 유럽자기박물관이 창조 도시로의 도약에 기여할 수 있는지,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고양에 이바지 할 수 있는지, 도시 브랜드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지역 관광콘텐츠 제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부천의 공예문화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정책수립이 가장 시급하며 공예문화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집중 투자와 다른 분야와의 협업, 공예품에 대한 마케팅, 유통지원 등 산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공예산업 전체의 질적인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다른 지역 공예산업클러스터와의 차별성 및 인지도 확신을 위해 유럽자기박물관을 거점으로 하는 생산 및 전시, 유통시스템 구축을 제안해본다. 또한 공예체험교육관이 수작업 중심 및 개인공방 위주의 제작 형태에서 벗어나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를 수 있는 디자인의 혁신을 가져와 공예품의 세계화를 이끌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부천시는 영국의 셰필드 성공사례를 거울삼아 지역의 박물관 및 지역 축제 등 특화된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공예산업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공예상품에 대하여 마케팅, 창업, 유통지원 등 산업활성화 정책을 수립하여 공예산업 전체의 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길 기대해 본다.

박물관과 관광산업, 공예상품의 융합은 부천시의 인지도 향상 및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부천 공예문화산업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부록1.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 13299호, 2015.5.18. 제정]

공예는 한 국가의 문화적 전통과 미적 가치에 근거한 활동으로서 민족의 정서와 지혜가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한 국가의 이미지와 문화적 수준을 상품에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산업이다. 특히 대량 생산체제에서 소량다품종 생산체제로 이행하는 시대적 경향에 부합하고 관광, 교육 등의 다른 산업분야와의 연계 범위도 넓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의 대표분야이다.

그러나 그동안 부분적이고 산발적인 공예진흥 정책과 더불어 공예문화산업을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고 공예의 다양한 측면들이 상충간 융합 효과를 내지 못하고 공예문화산업 전반이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며, 생활 속 예술이라는 공예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일상생활과 괴리되어 왔다.

또한 전통공예는 전승과 보존 위주의 소극적 정책으로 대중화와 활성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문화산업 측면에서도 공예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일반적인 기업지원정책으로 일관하여 그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하나의 문화적 결정체이자 총체적인 문화장르로서의 공예를 공예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전통과 현대, 예술과 산업을 아우르는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육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문화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공예의 가치 확산을 통하여 품격 높은 일상문화를 창출함으로써 생활 속에 예술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제공: 법제처

부록2. 유럽자기박물관 현황 및 프로그램

박물관명	유럽자기박물관		
위 치	부천 원미구 소사로 482	개관연도	2003년 5월 26일
운영주체	부천시 설립 부천문화재단 수탁운영	소장 전시품	유럽자기, 유리(크리스탈)작품 등 904점
박물관 소개			
<p>현 박물관 관장이 수십 년간 수집한 유럽자기를 부천시에 기증하면서 2003년에 개관한 공립전문박물관이다. 시민들에게 유럽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제적인 감각과 안목을 높이는데 설립목적이 있으며 18세기부터 근대에 이르는 유럽자기를 중심으로 유리(크리스탈) 작품과 앤틱가구로 구성되어 있다.</p> <p>유럽에서 최초로 중국식 백색자기를 개발한 독일의 마이센을 비롯, 프랑스의 세브르, 영국의 로열우스터, 덴마크의 로열 코펜하겐, 헝가리의 헤렌드 등 명품자기와 나폴레옹이 사용했던 샴페인잔, 에밀갈레, 돔, 바가라, 칼리크 등 유리(크리스탈) 예술품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다.</p> <p>또한 전시실 내의 영상실은 유럽자기의 기원과 흐름, 유럽자기의 명가, 박물관 소장품등을 확인할 수 있고, 마이센, 로열우스터사의 자기제작기법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다.</p>			
규 모	건물연면적 528m ² , 전시실 384.51m ² , 영상실, 체험(교육)실 등	인 력	3명 (관장, 학예사, 행정)
연간 관람객 현황 (13~15)	2013년: 19,150명 2014년: 19,040명 2015년 현재: 14,023명	관람 요금	어른 1,000원 (단체800원) 학생 600원 (단체400원) 미취학 아동, 65세 이상 무료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부천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위치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마이센(Meissen) 룸, 다이닝(Dining) 룸, 영상실, 체험실 등으로 구성</p>			

특징

- 기증으로 설립된 전문테마박물관이다. 기증자가 현 박물관 관장으로 기증자의 소장품 수집 배경과 경로, 작품에 대한 일화 등 유물에 얽힌 이야기들을 직접 들을 수 있다. 스토리가 있는 박물관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 부천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3개관(교육, 수석, 활박물관), 부천옹기박물관, 펄벅기념관과의 연계사업과 통합관람할인정책을 시행하여 관람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 1) 지역축제인 원미산 잔디대축제와 복사골예술제에 참여하여 박물관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2) 특화된 성인 대상 프로그램인 포셀린페인팅 교실의 활성화로 2015년도 작품전시를 개최하였다.

주요 전시 / 교육(체험) 프로그램

- 상설전시 : 유럽자기의 기원인 독일 마이스엔파 18C부터 근대에 이르는 유럽자기 및 유럽문화 동향 파악
- 주요기획전시
 - ‘만남, 첫 번째 결실’ 포셀린페인팅 작품展 (2015)
 - 박물관에서 떠나는 배낭여행-유럽자기에서 도시를 만나다展 (2015)
 - 유럽자기의 원류-마이스엔파로 떠나는 여행展 (2014)
 - 조선의 눈물, 해주도자기와 석간주의 만남展 (2013)
 - 양탄자를 타고 동화의 나라로! (2012)
 - 아르누보를 빛낸 유리예술가의 작품세계
 - 자기인형으로 보는 유럽문화이야기 등
- 교육(체험)
 - 가족 또는 단체 대상 : 그림이 있는 세라믹 체험, 비스크 인형 제작과정 시연 및 체험, 냅킨아트로 만나는 유럽문화, 손으로 톡! 눈으로 톡!(아이클레이 공예)
 - 성인 대상 : 포셀린페인팅 교실(백색 기물에 특수 안료를 이용하여 단계별 문양을 그린 후 구워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나만의 작품을 만들기 프로그램)
 - 강좌 : 유럽문화산책, 동·서양의 차(茶)문화, 동서양의 식문화와 테이블 및 푸드코 디네이트, 서양엔틱 가구 속에 숨어있는 유럽문화, 조선자기와 석간주, 서양장식미술사, 유리의 아름다움, 서양미술 감상법 등
 - 체험 활동지 : 박물관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

참고문헌

【논문】

- 이유아,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공예산업 활성화 방안」,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정건용, 「공예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호남권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 김진호, 「한국공예산업 현황에 관한 연구-공예산업구조를 중심으로」,
서울산업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조정환, 「현대생활공예 문화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 한장원, 「공예문화상품의 산업화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연구보고서 및 학술지】

- 문화체육관광부, 「공예문화산업진흥법」, 2015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3 공예백서」, 2014
- 서울특별시, 「서울공예문화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 2014
- 문화체육관광부, 「공예산업 활성화 대책」, 2013
-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부천시, 2013
- 정책자료집-콘텐츠, 문화체육관광부, 2013
- 김성민, 「공예문화산업의 발전방안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2013
- 한국박물관 개관 100년의 의미와 미래, 21세기 박물관의 발전 전략과 미래, 국제포럼, 2009
- 최병식,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장단기 진흥방안」, 경기도박물관협의회, 2008
- 최종호, 「박물관의 이론과 실제: 박물관 실무지침(2)」, 한국박물관협회, 2004
- 부천 문화산업 클러스터 발전전략, 부천시/삼성경제연구소, 2003
-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 현황점검과 발전방안, 문화관광부, 2003
- 추원교 외 「한국산업공예의 활성화 방법 연구」, 한국공예논총, 한국공예학회, 2000

【인터넷 사이트】

- 문화체육관광부 <http://m.mcst.go.kr>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http://www.kcdf.kr>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http://www.kcti.re.kr>
- 부천시청 <http://www.bucheon.go.kr>